



# 다함께 대학생 모임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연락처 02)2271-2395 | 010-2752-2003  
■ http://www.alltogether.or.kr ■ atgstudent@hanmail.net



# 고려대 당국은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4월 19일 고려대 당국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 중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12명에게도 유기정학과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학교 입학 사실 자체를 폐기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학생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이유로 많은 대학에서는 아예 '출교' 조치를 학칙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다. 삼성이 지배하는 성균관대 정도를 제외하고 말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작년 이맘 때 이 건희에게 박사 학위를 바침으로써 '삼성맨'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도 삼성의 탄압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이번 징계를 위해 지난 달에 학칙까지 개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본관 점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학생들을 '출교'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작년에는 일선 평교수들이 반발 때문에 징계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도 소수 보

교수들이 맘대로 징계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 징계 결정 담화문에서 학생들의 농성이 "불법 폭력 시위"였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런 위협조차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 오노 액션

심지어 3월 22일 본관 항의 방편 때 경영대학장 장하성 교수가 '출교' 대상자 오진호 학생을 때렸는데도, 고려대 당국은 거꾸로 학생이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 4월 5일 본관 농성에 대해서도 고려대 당국은 출교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감금' 주장은 완전히 '오노 액션'을 방불케 한다.

당시 학생들은 진정서를 받아주면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교무위원들이 17시간

동안이나 진정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장시간대치했던 게 소위 '감금' 사건의 진실이다.

학생들이 회의실 가서 대화하자고 할 땐 거부하더니, 다음날 새벽 언론사 취재 행렬이 들이닥치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감금당한 양 진실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고려대 당국은 "사제 관계를 깬다"며 출교 학생들을 '패륜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제관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4월 5일 당일 학생들을 제자 취급도 안한 당사자는 바로 교무위원들이었다. 그들은 "보건대 학생이 본관에 온 것은 침입이다"하며 보건대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

특히 성영신 학생처장은 보건대 학생회장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 "너는 내 관리 대상이 아니다. 고대 학생처에서 나가라"하고 냉혹하게 내쫓았다.

또한 '사제관계'를 더럽힌 '비윤리적'

인 성희룡 교수들은 고려대 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 "네 어머니도 너처럼 유방이 크냐?",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늙은 여자의 심정", "몸을 팔아서라도 교제사와라."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말들을 '교육자'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데도 말이다.

오히려 동료 학생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공감을 표하고 연대하려 한 학생들의 행동이야말로 지극히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 학생들은 그 동안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 학사 행정, 학내의 부당한 차별 등에 맞서 싸워온 정의로운 동료 학생들이다.

고려대 당국은 역경에도 민주주의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4·19 폭거'를 통해 민주주의에 더러운 먹칠을 하는 고려대 당국에 맞서, 학생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연대 정신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 보건대 학생에 대한 차별

고려대학교 당국은 작년 10월 말 학생들과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병설 보건대 통합을 결정했다.

어윤대 총장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보건대 학생들을 “고대 구성원”이라고 부르며,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사 코스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 후에 보건대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 권리인 수업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양과목 개설은 대폭 줄었고, 원하는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군대 문제 등으로 휴학하고 복학했을 때 남은 커리큘럼의 이수 방법도 불분명한 상태다.

인안 본교와 정릉 캠퍼스 사이의 셔틀버스 운행 여부, 고려대 본교로 입학한 보건대 신입생을 위한 과방 등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22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생처장을 찾은 보건대 학생회장에게 “너는 내 권한이 아니다”며 모욕을 줬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보건대 학생들에게도 본교와 똑같이 등록금 6퍼센트 인상을 적용했다.

어윤대 총장은 ‘CEO’ 총장답

게 기업 인수·합병처럼 보건대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재벌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공장과 기계만 인수하고 노동자는 해고하듯이 어윤대 총장은 보건대 학생들을 저버렸다.

어윤대 총장은 기업주들이 원청·하청 노동자를 이간질하듯이 안암·정릉 학생들을 이간질했고, 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듯이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했다.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 학생들과 함께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투쟁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고 다른 고려대 단과대 대표들과 총학생회 선관위는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학내 거의 모든 학생 자치기구를 무시한 학교 당국이 “학생자치활동 보호”(〈담화문〉)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4월 5일 보건대 학생들과 이들을 지지한 고려대 본교 학생들이 투표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 본관에 찾아간 것은 더 이상 부당한 차별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교수 ‘감금’ 사건

# 제자를 끝까지 외면한 ‘스승’

4월 5일 본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교수들을 감금한 적이 없다.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요구서를 받을 것을 요청했을 뿐이다.

사실, 학생들이 정중히 요구서를 전달했을 때 학생처장이 받기만 했어도 “학생들이 박수치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상황”(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이었다.

그러나 학생처장은 종이 한 장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건대 학생들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보건대는 폐교된 것이지 통합된 것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했다.

이 때문에 이전에는 집회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던 보건대 학생들이 17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수들이 끝까지 외면한 게 사태의 본질이다. “다른 처장님들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비집고 들어오시더니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농성 중에 학생들은 시종일관 처

장들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했고, 물과 자비를 들여 산 식사를 제공했지만, 처장들은 학생들에게 “미친 것들 아냐!”, “지랄한다” 등 각종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역계해도 4월 6일 새벽 언론사가 취재하러 오자 학생처장은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나, 너희들과 대화할 수 있다”며 태도를 싸비켰다.

“근대 어이없는 것은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학생들을 징계하겠다는 공지가 학교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건정오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담화문) 짓을 저지른 것은 엄살장이 처장들과 어윤대 총장이다. 이들이 담화문에서 약속했던 “스스로 삶을 도려내는”(〈담화문〉) 반성과 개혁이 나서지 않으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 학교 당국의 징계 조치가 진정 노리는 것

고려대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교육자로서의 책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어윤대 총장 취임 뒤 고려대 당국은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현실팽처럼 내팽개쳐 왔다.

어윤대 총장은 총장 취임 직후 “고려대라는 이름만 남기고 다 바꿨다”고 말했다.

“교수가 안 됐으면 CEO가 됐을 것”이라

던 어윤대 총장은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의 못 다한 ‘꿈’을 대신했고, 학교 운영에 ‘기업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했다.

학교는 기업의 ‘영업장’이 됐다. 스타벅스·던킨도너츠·맥주 바 ‘위하교’가 들어섰고, 해마다 ‘기업-대학 공동포럼’을 열어 교육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했

다.

LG전자는 ‘주문형 석사 제도’를 통해 학생 선발전, 교과목 설계권, 계약 교수 파견권을 행사하고, 경영대에는 ‘삼성SDI 말레이시아의 현지화’가 전공필수 과목 수업 내용에 포함됐다.

또, 학교를 방문하는 ‘기부자’들을 위해 붉은 카펫을 깔고 호텔급 대접으로 떠받드

는 것은 물론, 막대한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게 건물 이름을 선물했다.

지난해 5월 정경유착·편법 상속·노동탄압의 ‘대명사’인 삼성 이견회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은 이러한 친(親)기업적 행태의 절정이었다.

반면,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종속될수록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건물은 늘었지만 학생들은 기존 자치공간에서 쫓겨났다.

어윤대 총장이 기업 기부금 유치를 자랑하지만, LG·포스코·삼성·하나은행 등의 기업 기부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등록금은 계속 올랐다. 어윤대 총장은 “최소한 1천5백만 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조치들— 토익 졸업 제한제, 상대평가제 등 —이 강화됐다.

## 공격

4월 5일 본관 농성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과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따라서, 본관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 시도는 전체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성균관대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00년 등록금 투쟁 당시 성균관대 당국은 대학 본부 정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 징계를 내렸다. 4명에게 출교 조치가 내려졌고, 18명의 학생회 간부들에게 제적·무기정학·유기정학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금 성대에서는 재단이 학내 모든 교수들의 성향을 수집하고, 학생들의 시위 참여와 사회 비판적인 선전물에 대해 사찰을 벌인다.

심지어 학내 잔디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입구에 언덕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버렸다.

삼성그룹(성균관대 재단 이사 가운데 삼성 관계자들이 많다) 이견회 부자의 변칙 증여 세습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렸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만든 교지 <성균> 5천 부 전량이 배포 시차 두 시간 만에 강제 회수된 일도 있다. 이 후에도 대학 당국은 편집장 선출권을 빼앗고, 교지 발행마저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방송국·영자 신문사의 경우 ‘학교 부속 기구’라는 이유로 학생들은 편집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대 당국의 이런 징계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고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내 자치활동 억압이 확대되고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학내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통제에 반대하는 모든 학생들은 본관 농성 참가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학위 정사관이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어윤대 총장 - 교육자인가 재벌의 하수인인가

이견회에게 철학 박사 학위를 팔아 넘기려 했던 어윤대 총장이 “반교육적인 불법과 격행동” 운운하며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어윤대 총장은 교육자라기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말그대로 ‘CEO’다.

그는 전국도를 기업의 사냥터로 만드는 기업도시’에 찬성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 하단다.

“기업의 요구를 찾아 고객만족 교과목을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양성”해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그의 “교육관”이다.

무엇보다, 어윤대 총장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홀몰먹일 자격이 없다.

그의 ‘교육관’에는 인권·평화·평등이 끼

어들 틈이 없다.

그는 작년 삼성 등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조속히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세계는 미국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엄연한 현실”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이라크 학살 전장을 냉혹하게 두둔한다.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그는 교수들의 강의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2003년 조흥은행 매각 때는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하는 데 앞장섰다.

등록금이 “1천5백만 원은 돼야”한다며 가난한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는 청년 실업의 원인도 “등록금이 싸”서 “임여인력이

양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아이들의 꿈에는 관심도 없는 그는 “국내 고교 교육은 세계경쟁과 시장메커니즘”에 맞지 않자며 서열화를 조장하는 고교등급제를 찬성하고 본교사 부활을 주장한다. 대신, 부자들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나머지 기여입학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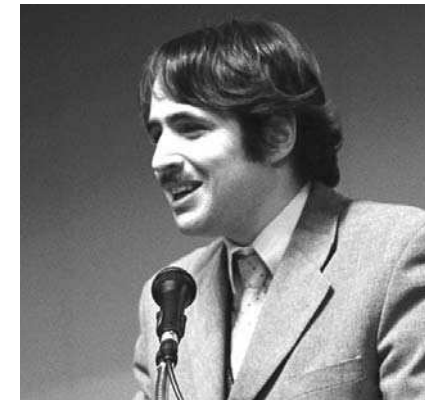
그는 일본의 우익 월간지인 <문예춘추> 3월 호에 황장엽, 한승조 등과 더불어 한국의 ‘신심력자’라고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

그 때문인지 어윤대 총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축복”이라는 망언을 한 한승조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

이런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징계는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 징계에 반대하는 목소리



학생들은 학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의견차이가 충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자칭 고대인으로써 (저는 15년 전에 고대에서 3개월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 저는 대학 당국에게 최소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밖에서 봤을 때,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처벌은 결코 민주적 과정의 결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



동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동지들의 실천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찬성하고 고려대학교 당국이 시도하는 동지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합니다.

동지들! 차별을 분쇄하고 탄압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진리·자유·정의라는 훌륭한 학교의 구호에 걸맞게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서로가 소통하고 정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행복은 물론, 온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탐구하고 토론하며, 실현하고 전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갔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써 가며 언쟁을 벌이는 것은 전혀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학생들을 굳이 징계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길로 안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돌(고려대학교 교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만든 진정서를 면전에서 거부한 고려대학교의 처사는 매우 부적절했다.

만약, 고려대가 처음부터 학생들의 주장과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 시위 학생의 징계는 고려대가 그동안 자랑해 온 ‘자유·정의·진리’ 전통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 부디 고려대 당국이 속고해서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징계방침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김충철(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근래 들어 고려대학교 당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 통제해탈과 구조 조정이 마치 기업 M&A처럼 자신만 인수하고 사람, 학생은 인수하지 않는 타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우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일련의 문제가 마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공방과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다. ... 고려대학교 당국은 4·5 본관 점거의 본질을 가리는 징계만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 출교 대상자 7인의 목소리



강영만, 김지윤, 조정식(위), 서범진, 안형우, 오진호, 주병준(아래)

# “징계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강영만 (사범대 컴퓨터교육과 01)**  
“성균관대학교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던 지난 2000년의 경우 성대 학생들은 항의서한서 한장만 제출한 뒤 투쟁 없이 그 조치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뉴라이트’ 학생회가 집권한 후 운동권을 탄압했으며 대자보 하나를 붙일 때에도 학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성대 경우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약수’를 둔 것이라 생각한다.”

**김지윤 (문과대 사회학과 03)**  
“학교의 ‘비윤리적’이고 ‘반교육적’ 처사에 맞서 끝까지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정의·진리가 꽃피는 그 날까지 함께합시다!”

**조정식 (법대 02)**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싸운 것이 잘못이라면, 전 세계 투쟁하는 민중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임을 믿기에, 모든 투쟁하는 이들이 ‘죄인’의 굴레를 벗는 그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범진 (문과대 철학과 02)**  
“학교는 그간 교육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4월 5일 시위를 과장, 왜곡해 모두 출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 책임지는 자세는 이런 식의 징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진호 (문과대 한국사학과 03)**  
“부당한 학교에 저항한 것이 죄이고 잘못이라면, 이 세상은 지배자들의 마음대로 굴러갈 것이고, 노동자 민중들은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안형우 (사범대 국어교육과 02)**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학교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굴하지 말고 함께 싸웁시다!”

**주병준 (사범대 지리교육과 02)**  
“몇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학교의 부당함에 맞서는 목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징계 철회를 위해 함께합시다!

-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과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모금계좌: 391-910213-16107 김준호)
- 징계 반대 성명서를 대자보로 부착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runkustu@hanmail.net
- 격려 전화와 메시지도 보내 주세요.  
강영만: 011-9090-7366 | 김지윤: 016-546-5560  
안형우: 016-510-0581 | 주병준: 011-9909-0249  
조정식: 011-9560-3357 | 서범진: 011-9948-3077
- 고려대학교 당국에 항의해 주세요.  
총장실: 02-3290-1001~3 | 학생처: 02-3290-1101~4